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 11월 13일 (목) 한국홍보관, 11월 14일 (금) 유엔기후변화협약 홍보관에서 개최
- 국제기구 협력, 인공지능·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추진

기획재정부는 브라질 현지 기준 11월 13일 목요일(한국홍보관)과 11월 14일 금요일(유엔기후변화협약 홍보관)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 (COP30, 30th Conference of Parties) 11.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 6만여명 참석 예상

**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

↳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한 탄소시장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9일에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기획재정부가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을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한 행사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파리협정 제6조의 높은 수준의 환경 건전성에 부합하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1. 한국 홍보관(Korea Pavilion) 홍보(11월 13일 (목) 15:30)

한국 홍보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홍보행사를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회사,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과 진선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세계은행, 탄녹위 민간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개선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거버넌스, 고무결성 크레딧, 레지스트리 연계 등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와 축사 이후,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추진계획(기획재정부), 시범 사업 실시 등 산림 분야 협력 방안(아시아산림협력기구), 탄소시장의 분절화 방향(세계은행 발레리 히키(Valerie Hickey) 글로벌 국장), 인공지능 등 디지털 MRV 활용 방안(탄녹위 류광남 민간위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 홍보관(UNFCCC Pavilion) 홍보(11월 14일 (금) 13:00)

유엔기후변화협약 홍보관에서는 기획재정부,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 녹색성장기구가 공동으로 홍보행사를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개회사,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과 다니엘레 비올레티(Daniele Violetti) 유엔기후변화협약 선임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영상 개회사(한국 홍보관 개회사와 동일) 이후,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이 ‘신뢰 격차’를 극복할 시의적절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가 고도의 무결성을 갖춘 탄소시장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레 비올레티 선임국장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이 탄소시장의 환경적 무결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남남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2026년부터 크레딧 발행 방법론 개발, 국제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개도국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도익	(044-215-8750)
		담당자	사무관	이수호(GVCM)	(suholee90@korea.kr)
			사무관	추연재(행사 지원)	(yjchu@korea.kr)
			통번역전문관	장예경(한국관 사회)	(ykJang89@korea.kr)



참고 1

제30차 당사국총회 계기 홍보행사 개요

1 (한국 홍보관) 고무결적인 탄소시장을 위한 GVCМ 구축(Building GVCМ for High-Integrity Carbon Markets)

□ (일시/주관) 11.13일(목) 15:30 / 기획재정부-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발표)

- ① 개회사(구윤철 부총리), 축사(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 진선필 AFoCO 사무차장)
- ② GVCМ 추진 계획(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 ③ 산림 분야 GVCМ 시범사업(안)(최성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탄소사업팀장)
- ④ 고무결적 탄소시장 디자인: 세계은행의 경험과 통찰
(발레리 히키 글로벌 국장)
- ⑤ 디지털 혁신을 통한 파리협정 6조 촉진: GVCМ과 기술 기반 감축의 역할(류광남 탄녹위 민간위원)

2 (UNFCCC 홍보관) GVCМ으로 가는 길(A pathway for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

□ (일시/주관) 11.14일(금) 13시 / 기획재정부-UNFCCC-GGGI

□ (발표)

- ① 개회사(구윤철 부총리), 축사(김상협 GGGI 사무총장, Daniele Violetti UNFCCC 선임국장)
- ② GVCМ 추진 계획(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 ③ GVCМ 운영계획과 주요 고려 사항(김승태 GGGI 개발금융국장)
- ④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 운영 현황과 합의
(Perumal Arumugam UNFCCC 매니저)

1. 영문

Distinguished guests,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oday.

It is truly meaningful
to host this important event
at COP30 in Belém, Brazil.

The climate crisis stands as
the critical challenge of our time

It demands urgent and united global action
to protect our future.

Around the world,
many countries are working
to reduce carbon emissions.

The voluntary carbon market, or VCM,
is one of the key tools to make this possible.

But concerns remain
regarding the cred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is market.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to create a new carbon market
that everyone can trust.

In response, Korea has joined hands
with the UNFCCC and GGGI.

Together, we are establishing the GVCM
—the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We plan to strengthen its credibility and transparency.

We will do this
by developing strict methodologies and MRV standards

And as an IT powerhouse,
Korea will bring advanced technologies into the process.

AI and blockchain will help us
monitor carbon reductions
and make credit trading more reliable.

We hope that
the GVCM will play a pivotal role
in driving global carbon reductions.

Distinguished guests,

Korea alone cannot make the GVCN a success.

We need the support from all stakeholders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investors.

I believe today's event can be a historic moment.

- A milestone on the path to
building a trustworthy, effective,
and global carbon market.

Let us work together to make it happen.

Thank you very much.

2. 국문 번역본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이번 COP30에서
중요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에 중대한 도전 요인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긴급하고 단합된 글로벌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신뢰도와 투명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탄소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UNFCCC, GGGI와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GVCN,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엄격한 방법론과 MRV 기준을 개발하여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IT 강국으로서 한국은
절차 측면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할 것입니다.

AI와 블록체인은 탄소 감축량을 모니터링하고
크레딧 거래를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GVCМ이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역할(Pivotal role)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GVCМ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행사가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이고, 글로벌한
탄소시장을 만드는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참고 3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구상(안)

□ (명칭)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GVCM,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

- (정의)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

□ (특징) ①민간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 감축 실적을 ②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③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크레딧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④다자 체계로 운영되는 ⑤글로벌 탄소시장

(: UNFCCC 중점 협력 사항, : GGGI 중점 협력 사항)

GVCN 정의	특징	추진 방안
1. 민간이 자발적으로 창출	▶ 민간이 해외 사업을 진행하여 크레딧을 창출하고, 정부는 크레딧 시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원(민간 주도)	사업 지원
2. 공신력 있는 기준	▶ UNFCCC와 협력하여 MRV, 방법론 등 크레딧 발행에 필요한 기준 마련	발행체계 개선
3.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크레딧 발행	▶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기관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크레딧을 발행하여 공신력과 효율성 확보	발행체계 개선
4. 다자 체계	▶ 여러 국가가 참여하여 사용하기로 합의 → 효율적인 국가 간 이전 체계 구축	다자 체계 구축
5.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거래	▶ 국가 간(International) 이전뿐만 아니라 국적이 다른 민간 간 거래도 포함하는 시장 구축	거래체계 구축